

사회복지사 정치참여 실태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김교연(이화여대 마포자활후견기관)

사회복지사들의 정치참여 의식이 변화하고 정치참여 활동이 싹을 움트고 있는 현재, 사회복지사들의 정치참여를 주제로 하여 체계적·학문적인 접근을 시도한 연구는 부족하다.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복지사들의 정치참여활동 현황을 분석하여 현황을 짚어보고 차후 사회복지사들이 나아가야 할 정치참여의 활동내용과 방향을 제시해보고 사회복지계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사회복지현장과 교육영역에 실천적 함의를 주고자한다. 본 연구의 2003년 9월, 사회복지정치참여 조사위원회의 자료에서 사회복지현장종사자인 1229명을 추출하여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한국의 사회복지사의 정치참여 형태의 특성을 미국과 비교해 보았을 때 집회나 시위에 참여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관료접촉, 선거운동, 재정적 기부는 미국사회복지사의 절반도 안 되는 경험을 가진 것을 알 수 있다. 정치효능성과 정치흥미, 협회의 소속과 정치적 행동제안이 정치참여에 영향력 있는 변수인 것으로 보아 시민자발성모델은 한국의 사회복지사의 정치참여를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지사들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는데 있어서는 정치효능성 및 정치흥미를 길러주는 접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요구된다는 것과 연결지을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협회나 단체의 역할이 사회복지사들의 정치참여를 유도하고 결집시키기 위해서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주제어 : 정치참여실태, 정치효능성, 사회복지단체

1. 서론

최근 사회복지계에서는 서명운동, 시위, 집회와 같은 집합적 행동을 통해 정부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활동이 나타나고 있다. 종사자 처우개선과 복지예산현실화를 관철시키기 위해 2003년 8월 여의도에서 개최된 사회복지사 쉼기대회와 그 밖에 건강가정육성지원법 반대 서명운동, 1인시위운동, 사회복지공동대책위원회의 활동 등이 그 예이다.

또한 각종 신문상(경향신문 8월 22일자, 대한매일 9월 2일자, 한겨레 8월 8일자 등)에서 사회복지사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정치활동의 당위성을 옹호하는 기사가 넘치는 것은 그간 사회복지계에서는 볼 수 없

었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수요자를 empower시키고 서비스 전문성 발전을 위한 개입과 서비스 방법 개선에 정진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치를 타락한 것으로써 의식하고 거부했던 사회복지사들이 점차 변화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렇듯 사회복지사들의 정치참여 의식이 변화하고 정치참여 활동이 싹을 움트고 있는 현재, 사회복지사들의 정치참여를 주제로 하여 체계적·학문적인 접근을 시도한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이것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회복지사들의 정치참여 활성화·촉진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현실을 진단하는 접근이 절실하다는 생각으로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선거기간에 우리가 원하는 사회복지정책들을 얻기 위한 사회적 표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것은 선거기간에 사회복지정책이 더 활발하게 입안이 된다는 것을 보고한 남준우(1998)의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복지정책은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실질적인 사회적 요구로 표출되지 않으면 정책 쟁점화 될 가능성이 낮다고 하였다.

한편, 복지단체를 포함하여 노동, 경제, 교육, 시민 등의 10개 사회단체의 선거활동에 참여를 조사한 한국 사회단체의 정치활동에 대한 연구(2002, 홍성만)에서는 노동, 교육, 시민 등의 10개의 단체 중 복지단체를 9순위로써 복지단체의 선거활동의 참여가 저조함을 보고하였다.

선거기간 중 정치인들이 국민의 표를 얻기 위해 사회복지정책의 입안을 활발히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단체는 선거활동에 참여가 저조했다. 이것은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정책 발전과 관련된 현실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 파악 능력이 부족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들이 정치참여가 증진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떠한 것이 개선되어야 할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실의 진단뿐만 아니라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발견해보고 이를 토대로 하여 미래의 발전방향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사회복지사들의 정치참여의 중요성을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로는 미국의 Domanski(1998)와 한국의 김성이(2003)가 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이 정치참여의 중요성을 보고했다.

Domanski(1998)는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참여 즉, 정책입안자의 자원분배결정에 영향을 주는 정치활동을 거부할 때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적인 역할은 정책개발과정에서 소외된다고 정치참여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또한 김성이(2003)는 사회복지사의 정치참여가 사회복지 실천의 장을 확대하며 사회복지 전문성의 실제적 향상과, 나아가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로 보호하는 사회복지 수요자들의 서비스 강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복지사의 의무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사회복지인들의 정치참여의 중요성을 말했다.

이처럼 사회복지의 중요한 영역으로써의 정치참여는 우리 보다 사회복지의 앞선 전통을 가진 미국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다. 미국의 사회복지사들은 정치참여가 그 형태와 수준에 있어서 우리와는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일반대중보다 사회복지사들의 정치참여가 더욱 활발하다는 연구(Haynes & Mickelson, 1986; Mathews, 1983; NASW, 1995; Parker & Sherraden, 1991; Reeser & Epstein, 1990; Wolk, 1981)가 오래전부터 활발히 일어나고 있으며, 1980년대 공화당의 레이건 대통령의 집권 시와 1990년대 클린턴의 집권 시에 사회복지프로그램과 급여의 삭감과 같은 사회복지정책의 후퇴기에 사회복지사들의 정치적 활동이 더욱 증가하였다는 연구결과(Wolk, 1981; Ezell, 1993)가 이미 보고된 바 있다. 이것은 미국의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정책의 형성 및 발달에 있어서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상당히 반응적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 뿐만 아니라 정치

참여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심리적 요인들을 탐색하고 가장 강력한 예측변수를 식별하는 연구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정치참여를 증가시키기 위한 개입과 전략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사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연구와 전략의 개발이 활발한 미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 사회복지사들은 정치참여활동 경험의 역사가 짧고 또한 참여의 형태와 수준은 아직도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단체 및 이익단체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연구는 되고 있지만 전문적 집단으로써 사회복지사들의 정치참여를 주제로 한 구체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의 실천방법의 한 영역으로써 이제 진입단계에 있는 한국의 사회복지사들의 정치참여의 형태와 수준에 대한 실증적 조사를 통해 학문적인 접근을 시도해보자 한다.

이 연구는 한국의 사회복지사들의 정치참여활동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우리의 현제를 짚어보고 차후 사회복지사들이 나아가야 할 정치참여의 활동내용과 방향을 제시해보는데 유용할 것이다. 또한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심리적 변수들의 탐색을 통해서 사회복지사의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것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정치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계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사회복지현장과 교육영역에 실천적 함의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눈다. 첫째, 한국의 사회복지사들의 정치참여의 수준과 형태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현실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발견하여 사회복지사들이 나아갈 정치참여형태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둘째는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여 정치참여를 활성화 · 증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정치참여모델

미국의 정치학자들은 이용할 수 있는 자원(사회경제적)과 지각된 비용에 따른 참여의 이익(합리이론)의 차이에 초점을 둬으로써 미국인들의 정치참여의 수준과 형태의 다른 점을 설명하기 위해 시도해왔다 (Conway, 1991; Milbrath, 1965; Wolfinger & Rosenstone, 1980; Woodward & Roper, 1950).

한편, Verba, Schlozman, Brady(1995)는 사회경제적 모델(SES모델)과 합리적 선택이론은 정치참여를 설명하는 부적당한 해설이라고 비난했다. SES 모델은 누가 정치적으로 활동적인지에 대해서 예측하는데 사회경제적인 요인들에 의존하는데 이것은 개인의 정치참여를 이해하기에는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 또한 합리적 이론은 자신의 흥미와 잠재적인 보상에 근거하여 개인이 참여를 결정한다고 본다. 하지만 반면에 누가 참여할 것인지 예측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Verba, Schlozman, Brady(1995)는 SES 모델과 합리적 선택 이론에 최근 대안적인 모델로써 시민자발성모델(Civic Voluntarism Model)을 입증했다. 시민자발성 모델은 사회학습이론을 근거로 한 모델로써 자원과 정치적 관여, 모집을 위한 네트워크에 기초하여 정치 참여를 예측한다(Verba et al, 1995).

사회경제적 모델은 개인의 정치참여에 성, 연령, 지역, 학력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논리로 이루어진다. 정치참여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요인을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다루어왔다. 사회경제적 요인은 성, 연령(세대), 거주지역(도시 또는 시골), 거주기간, 종교, 인종

등의 인구학적 요인과 학력, 직업, 월 소득, 재산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 요인이 고려되어 왔다.

또한 Verba, Schlozman, & Brady(1995)는 사회경제적 요인은 참여를 예측하는데 신뢰할 수 있는 변수라고 했고, Conway(1991), Milbrath(1965), Verba & Nie(1972)는 사회경제적 요인이 정치참여를 설명하는 강력한 요인으로써 인식되어진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설득력 있는 사회경제적 모델도 단점을 가지고 있다. 사회경제적 모델은 충분히 경험적이고 정치적인 요인에 근거할 지라도 사회경제적 요인과 참여 사이를 연결하는 설명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가 결여되어있는 것이다(Verba, Schlozman, & Brady, 1995). 예를 들어 사회 경제적 모델은 왜 공공 프로그램으로부터 수혜를 받거나 낙태에 대한 이슈에 강한 믿음을 가진 개인들이 더 활동적인지는 설명하지 않는다(Hansenfeld & Rafferty, 1989; Verba, Schlozman, & Brady, 1995).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사회경제적 모델은 정치참여와 사회경제적 요인이 관련 있을 때 입증될 수 있는 모델이며, 모든 정치참여현상에 적용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합리적 선택 모델이란, 정치에 참여하는 합리적인 행동가는 참여의 비용에 초과하는 것으로써 가능한 보상을 인식할 때 정치에 참여한다는 모델이다. 합리적인 선택자들은 인간행위의 의도적인 측면에 주목한다. 그들에 의하면 인간 행위의 가장 기본적인 사실은 인간은 언제나 각자가 볼 때 보다 나은 미래의 상태, 즉 어떤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 행동한다는 것이다. 합리적 선택 모형은 이렇듯 목표 지향적이고 합목적적인 의도적 인간행위가 어떻게 산출되는가에 대한 일반적 모형이다.

McCarthy & Zard는 개인들을 정치 참여에 유인하기 위해서는 개인들에게 선택적 유인들, 비용을 최소화 시키는 기제 또는 구조, 그리고 집합행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경력 상의 장점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것은 정치참여가 개인이 비용과 보상을 고려한 합리적 선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Verba는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개인은 낮은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가진 개인보다 투표하는데 있어 더 높은 기회 비용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투표를 적게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합리적 선택모델은 시민의 의무를 주장하지 않으며(Cambell, 1950), 엘리트에 의한 옹호활동이나 동원을 설명하지 못하는(Rosenstone & Hansen, 1985; Verba, Schlozman, & Brady, 1995) 단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사회사업가의 정치참여를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보기에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의 정치참여는 지역사회 실천에 있어서 특권을 박탈당한 민중들을 동원하거나 클라이언트를 대표하는 옹호와 같이 대개는 이타적이기 때문이다(Weismiller & Rome, 1995).

합리적 이론은 이론적 근거는 될 수 있지만 누가 참여할 것인지, 얼마나 많이 참여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은 실패했다고 할 수 있으며(Verba, et al, 1995), 특히 이타적 집단인 사회복지사의 정치참여에 적용하기가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시민 자발성 모델이란 개인이 시민 자율 단체에 참여도가 높고 정치효능감, 흥미와 같은 심리적 요인이 발달되었을 때, 정치참여를 활발히 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모델이다. 시민적 관여는 개인이 사회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정치나 사회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개입하려는 일련의 태도 및 행동과 심리적, 행동적으로 공동체 생활전반에 연결되어 있는 정도를 말한다. 또한 능력을 가진 개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참여하기를 요청받을 때 더 활발히 정치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민 자발성 모델은 Verba, Schlozman 와 Brady(1995)에 의해서 제시된 것으로써, 그들은 사회경제적 모델과 합리적 선택 모델로만 정치참여를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했다. 시민 자발성 모델은 자원에 기초를 둔다. 그렇지만 정치적 관여와 모집을 위한 네트워크를 비활동적인 개인과 활동적인 개인을 구별하

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포함시킨다. 그것은 사회경제적 모델과 합리적 선택이론만 단독으로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바람직하다고 했다.

Verba, Schlozman 와 Brady는 개인들이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할 수 없기 때문'이고(자원의 부족) '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며(정치적 관여가 없음) 혹은 '아무도 요청하지 않기 때문'이다(타인과의 네트워크 없음)라고 말했다.

사회사업가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유사하고 같은 모집의 네트워크를 가졌기 때문에 정치적 관여는 정치 참여에 있어서 차이의 가장 설명력 있는 예측변수일지도 모른다.

2) 한국 정치참여 관련연구

정치참여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정치참여의 주체로써 개인을 연구한 것과 단체를 연구한 것으로 나눌 수가 있다. 우선 개인을 연구한 것에는 한국인의 정치참여에 대해서 전국규모의 1,551명에게 설문조사를 하여 분석한 한국정치문화(한배호·어수영, 1987)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참여 양식에 대해서 정보추구형, 투표형, 선거유세형, 항의형의 4가지로 나누었다. 연구결과 1987년의 국민들의 정치참여의 특징으로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와 같은 투표형의 정치참여는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항의형의 정치참여는 그 수준이 낮았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다.

또한 개인을 주체로 권위주의 상황에서의 비선거적 정치참여 수준과 형태를 조사한 한국인의 비선거적 정치참여(박종민, 1994)에서는 투표행위 혹은 선거유세활동 등 선거정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치적 행동은 포함하지 않고 비선거적 정치적 행동의 범주만 설정하여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개인적으로 정부관리를 찾아간 적(4.3%), 개인적으로 정치인을 찾아간 적(3.1%), 정부관서에 진정서를 낸 적(7.8%), 정당에 호소한 적(2.2%), 종교 혹은 사회단체에 호소한 적(7.0%), 언론기관에 전화하거나 투고한 적(9.7%), 항의대회에 참석하거나 시위에 가담한 적(17.7%)로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의 사회단체를 8개의 범주로 나누어 이 단체들의 정치활동을 분석하기 위해 선거활동양식과 정당에 대한 이들의 접촉, 선거를 둘러싼 단체의 정당 및 행정과의 접촉의 양상이나 정치적 표적을 내용으로 하여 연구한 한국 사회단체의 정치활동(홍성만, 2002)이 있다. 여기서는 선거활동을 특정의 후보자나 정당에 투표할 수 있도록 회원들에게 호소하는 참여방법과 회원들을 통해 일반인에게 호소하는 참여방법, 자금을 지원하는 참여방법, 선거운동에 인력을 지원하는 참여방법, 단체의 회원을 특정정당의 후보자로 추천하는 참여방법으로 나누었다. 또한 각 단체들의 정당지지, 이념성향, 정당 신뢰 등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복지단체는 타 농업, 노동, 교육, 정치, 행정, 종교, 시민, 경제, 전문가단체의 10개 단체 중에서 선거활동양상에 있어서 회원호소(9.0%), 일반호소(7.7%), 인력지원(2.6%), 후보추천(2.6%), 자금지원(1.3%)을 나타냈다. 또한 선거활동의 총점은 타 단체와 비교했을 때 9위의 낮은 순위를 기록하였다. 또한 복지단체는 신한국당과 국민회의를 각각 19.2%의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한국당과 국민회의를 각각 14.2% 접촉했는데, 이는 타 단체에 비해서 정당지지도나 정당접촉의 빈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 된다. 이념적 성향의 항목에서 높은 점수일수록 보수적인 것인데 사회복지단체는 4.24점, 일반회원은 4.14점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타 단체보다 보수적인 이념성향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 된다.

이상으로 한국의 정치참여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 정치참여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서 본 연구에서 사용될 종속변수인 정치참여의 내용구성에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3) 미국 사회복지사의 정치참여관련 연구

미국의 사회복지사들의 정치참여 활동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들 보다 그 경험과 역사에 있어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미국과 국제적으로 55개 구역에서 160,000명의 회원을 가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사회사업협회(the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와 사회사업교육협의회(the Council on Social Work Education)의 정치참여에 관한 규정과 활동내용을 통해서도 미국 사회복지계의 정치활동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가늠할 수 있다.

NASW의 전문가 윤리강령과 사회사업국제연합, 임상사회사업국제연합은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정책발전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행동해야만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IFSW,1995; NASW,1995; NFSCSW, 1987). 또한 NASW는 하부조직으로 정치활동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곳에서는 정부를 상대하는 관련 직원을 따로 확보하고 있으며(Weismiller & Rome, 1995), 국회와 같은 정부기관에 대면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Ezell, 1993). 또한 이 조직에서는 이용할 수 있는 기금과 정치적 기부금을 모금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1985년과 1988년 사이에 돈을 기부한 회원은 32,374명에서 84,182명으로 증가했다. 또한 기부금의 확보를 위해서 이곳에서는 회원이 기부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회비의 5%를 따로 떼어 이 위원회의 기부금으로 적립하는 check-off를 제도화했다. 정치활동위원회의 기금은 1994년에 405,745달러였다(Northeast Resonal PACE traing, May 1994).

또한 NASW 뿐만 아니라 사회사업교육협의회 CSWE(the Council on Social Work Education)에서는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석사와 학사를 위한 커리큘럼에는 정책에 영향을 주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과정과 사회복지정책의 개발과 분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CSWE, 1995).

미국의 사회복지계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의 정치참여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한 많은 학자들과 연구들이 있다. Miller(1987)등은 정치적 참여는 모든 사회복지실천가들에 의해서 사용되어야만 하는 기술이지만 몇몇의 사람들은 정치적 참여를 모든 사회복지실천분야라기 보다는 광의(macro)실천분야의 기능으로써 협소하게 그것을 다루어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Jansson(1990)은 정치적 참여는 전문적 분야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복지사들에 의해서 행해져야만 하는 사회사업의 통일된 주제라고 주장했다. 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다른 이익 집단과 같이 사회사업가들은 정치적 행동을 해야 한다(Specht & Courtney, 1994; Rothman, 1978)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많은 연구에서 사회사업가들이 일반 대중들보다 좀더 정치적으로 활동적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Mathews, 1983; NASW, 1995; Parker & Sherraden, 1991; Wolk, 1981) 사회사업가들의 정치적 참여는 사회정책을 제거나 발전시키기 위한 시도에 반응하여 증가할지도 모른다(Cloward, 1990; Pagliacci & Gummer, 1988)는 것을 언급한 연구도 있다.

또한 Haynes와 Mickelson(1986)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사회복지정책을 위한 주의 책임이 바뀌는 것이 제안했을 때 사회사업가들은 정치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준비되지 않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회사업가들은 1980년대 보다 레이건의 집권 후에 좀더 정치적인 활동에 참여했다고 보고 되어졌다(Ezwell, 1993). 이것은 사회복지정책이 위협받았을 때에 사회사업가들의 정치적 참여가 더 활발해 진다고 하는 Cloward의 이론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또한 1997년의 사회사업가들의 정치적 참여는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수급삭감이 제안되었을 때 높은 수준임을 보고한 연구도 있다(David Henry Hamilton, 1998).

여기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Parker와 Sherraden(1991)의 연구와 Ezell(1991,1993)과 Wolk(1981)의 연구,

David Henry Hamilton(1998)의 연구결과를 정리해보고 미국의 사회복지사의 정치참여의 실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가져보고자 한다.

첫째, Parker 와 Sherraden(1991)의 연구에서는 300명의 NASW 회원에게 정치참여 실태를 조사하였다. Parker 와 Sherraden은 일반 대중들의 정치참여를 조사한 ANES(미국국가적선거조사)의 데이터 자료를 참고하여서 사회사업가의 1984년, 1986년, 1988년 선거 투표율이 일반대중보다 높다는 것을 보고했다. 또한 사회사업가는 정치적인 회의나 집회 참여, 후보자나 정당에 재정적 기부의 참여, 후보자나 정당을 위한 캠페인의 참여가 일반대중보다 더 높다고 보고했다.

둘째, Ezell(1991,1993)과 Wolk(1981)의 연구에서는 일반대중 8000명에게 조사한 Woodward 와 Roper(1950)의 정치활동지표(the Political Activity Index) 척도를 가지고 사회사업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다. PAI는 투표하기, 압력단체의 회원 되기, 국회의원과 접촉하기, 정당에서 활동하기, 정치토론하기의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Woodward 와 Roper에 의해서 행해진 이전 연구에서의 PAI의 평균점수와 비교했을 때, Wolk는 사회사업가가 일반대중들과 다른 전문가집단보다는 정치적으로 좀더 활동적이라고 결과를 보고했다.

Wolk는 직업의 기능과 실천방법에 있어서 사회사업가의 정치참여점수의 차이점을 조사했다. 그는 직접적 실천서비스에서 일하는 사회사업가는 지역사회조직, 행정, 교육에서 일하는 사회사업가보다 낮은 점수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Ezell은 13%의 응답자가 비활동적이며, 55.5%가 활동적이고, 31.4%가 매우 활동적인 것으로 보고했다. 가장 활동적인 사회사업가는 높은 학위를 가지고 있었고, NASW에 속했으며, macropractice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었다. Ezell(1993)은 레이건 대통령의 집권 후와 집권 전(Wolk의 자료)의 사회사업가의 정치참여를 비교하기 위해서 같은 데이터를 사용했다. 사회사업가의 정치참여는 평균적으로 PAI점수에 있어서 3.7에서 4.6으로 의미 있게 증가했음을 보고 하였다.

셋째, Hamilton(1998)은 1997년 클린턴 집권 시에 사회복지정책의 후퇴와 수급삭감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사들의 정치활동이 이전보다 더 활발해졌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앞선 연구의 PAI척도에 정치활동내용을 보완하여, PPS(the Political Participation Scale)척도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나타내었다. 1996년에 대통령 선거에서의 투표는 92.1%, 이전 대통령 선거에서의 투표는 88.8%를 나타내었으며 전화, 편지, 이메일로 정부 관료접촉은 60.3%, 가족, 친구, 동료와 정치토론은 37.1%, 후보자나 정당에 재정적 기부금 기여는 35.6%, 행진, 시위, 집회에 참석은 24.7%, 개인적으로 정부관료 접촉은 16.9%, 선거캠페인에서의 자원봉사는 13.5%, 국회에서의 증언은 3.3%를 나타내었다.

또한 이 연구는 수입과 교육과 같은 사회경제적 자원들과 협회와의 네트워크, 정치적 효능성이 누가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가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변수임을 지적하는 일반대중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Verba, 1995)를 사회복지사에게 적용하여 실행하였다. 그 결과 정치적 효능성이 사회복지사의 정치참여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식별하였고, 기존연구가 현상을 나타낼 뿐 사회사업가의 정치 참여를 증가시키기 위한 개입을 제안하지는 않는 것에 비해, 이 연구는 정치효능성의 의식교육과 같은 정치참여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이상을 통해, 미국의 사회복지사들의 정치참여는 실천과 연구에서 모두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NASW가 정치 기부금을 모금하고, 회비의 5%를 정치기금으로 확보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현실과는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4)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회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으로 분리할 수 있다(Wolfinger & Rosenstone, 1980). 사회적 요인은 민족성, 성, 나이, 결혼상태, 주거유동성, 교육 년수, 사회경제적 상태, 자식의 수, 어린 자녀의 나이, 고용상태를 의미한다. 심리적 요인은 개인의 감정적 안녕상태가 아니라 정치적 과정에 대한 개인의 관여와 관련을 갖는 것으로써 정치 효능감, 자기 통제감, 시민책임의식, 정치적 사건에의 관심과 흥미, 정당소속감 포함한다. 심리적인 요인은 앞선 연구에서 정치 참여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된다(Verba & Nie, 1972; Verba, Schlozman, & Brady, 1995 외).

모집을 위한 네트워크는 개인들을 정치참여로 이끄는 수단이다. 우애 조합, 동맹, 전문가 협회, 종교 조직과 같은 자발적인 조직의 회원은 정치 참여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Baumgartner & Walker, 1990; Knoke, 1982; Verba, Schlozman, & Brady, 1995). Knoke(1982)는 협회와 같은 모집을 위한 네트워크는 교육과 직업적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선별하는데 기준이 되는 회원규정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경험이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정치참여에 영향을 주는 자원, 모집을 위한 네트워크, 정치적 관여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의 선행연구를 통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자원

자원이란 Verba, Schlozman, & Brady(1995)에 의해서 사용된 개념으로 인구학적 배경과 사회경제적 지위를 함께 묶는 개인의 사회적인 특성을 의미한다.

교육은 일반 대중들 사이에 정치참여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변수임을 보고하는 연구가 있다(Guth & Green, 1989).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과 정치참여 사이에는 강한, 긍정적인 관계가 존재한다. Vedlitz(1983)은 좀더 교육수준이 높으면 더 높은 정치참여를 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관여에 있어서 정치에 흥미가 더 높고, 정치효능감이 더 높으며, 더 진보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했다.

Verba, Schlozman, & Brady(1995)는 정치적 활동은 사회적 구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했다. 그러한 구조는 세대간 사회경제적 자원의 이전과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계층과 높은 계층 사이에 참여의 불평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어수영(2000)은 한국에 있어서는 교육수준이 높으면 투표의 참여율이 줄어드는 것은 과거 10년 전이나 현재나 변함이 없다고 하였다. 또한 사회사업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높은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회사업가 일수록 좀 더 정치적으로 활동적(Ezell, 1991,1993; Parker & Sherraden, 1991)임을 보고하고 있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참여가 증가하고, 중년층인 40대와 50대에 이르러서는 최고봉에 달한 후, 60대에 들어서면서 참여가 하락한다고 했다(Milbrath, 1965; Verba & Nie, 1977; Dahl, 1961). 어수영(2000)은 연령에 따른 종(bell-shape)모형의 참여양상이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 했다. Wolk(1981)는 사회사업가에게서도 정치활동과 나이 사이에 중요한 양의 관계가 발견된다고 하였다.

남성은 여성보다 정치에 더욱 흥미를 갖고 있으며, 정치적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투표에의 차이가 높다고 하는 연구가 있다(어수영, 1986). 또한 Milbrath와 Goal(1977)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경우에는 높은 경우보다 그러한 차이가 현격하게 나타난다고 했다. 과거의 연구에서는 남자는 여자보다 정치

적으로 좀더 활동적(Milbrath, 1965; Verba & Nie, 1972; Woodward & Roper, 1950)임이 보고 되고 있지만 남자와 여자 차이가 줄어들었다(Sigelman, Roeder, Jewell, & Baer, 1985)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어수영(2000)이 남성과 여성간의 참여의 평준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과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Secret과 Welch(1989)는 1976, 1980, 1984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ANES 데이터를 관찰했을 때 성차이는 완벽하게 사라졌다는 것을 발견했다.

재정적인 자원은 정치참여를 촉진시킨다는 연구가 있다(Milbrath, 1965; Verba & Nie, 1972; Woodward & Roper, 1950). 특히, 높은 수입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선거에서 투표하는 것, 특히 대통령선거에서 투표율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Miller & Traugott, 1989; Wolfinger & Rosenstone, 1980). 또한 Verba, Schlozman, & Brady(1995)는 수입은 캠페인에서의 기부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다고 보고하였다.

Stukes와 Jennings(1995)는 결혼한 파트너는 서로에게 적응하기 위해서 그들의 활동을 맞추는데, 결혼을 한 사람은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 정치적으로 더 큰 범위에서 참여를 한다고 했다. 또한 이혼이나 배우자 상실과 같은 결혼상태의 변화는 젊은층에서 정치참여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시골에 거주하는 사람보다 사회의 중심부에 가까우며, 정치적 자극에 대한 접촉이 더욱 용이하기 때문에 참여율이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다(Milbrath, 1965; Deutsch, 1961; Nelson, 1987).

Wolk(1991)는 직접적 실천서비스에서 일하는 사회사업가는 지역사회조직, 행정, 교육에서 일하는 사회사업가보다 낮은 점수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또한 공공복지에서 일하는 사회사업가, 교육현장에 있는 사회사업가, 정치 분야에 있는 사회사업가가 좀더 정치적으로 활동적이라고 보고했다.

(2) 모집 네트워크

정치활동에 대한 모집은 이웃과, 고용주, 협회, 교회나 다른 조직을 통해 나타난다. 이와 같은 조직과의 접촉을 통해서 정치참여는 증가한다. 사회적 상황과 개인의 정치참여의 효과를 조사한 Kenny(1992)는 정치활동이 이웃들과 의사소통 하는데서 발생한다고 보고했다. 또한 캠페인이나 돈을 기부하는 것, 집회에 참석하는 것과 같은 활동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과의 정치토론에 의해서 강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였다.

Verba, Schlozman, & Brady (1995)는 어떤 개인들은 아무도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모집의 네트워크는 자신을 모집에 요구하는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가와 협회로부터 정치활동을 제안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나누어 볼 수가 있겠다.

사회복지사들은 자신들이나 클라이언트를 대표하여서 정치 참여를 위한 연결망을 세우거나 지지하기 위해 전문가 협회에 가입할지도 모른다.

서비스 조직과 전문가 협회를 포함하여 자발적 협회의 회원인 것은 정치 참여와 연관이 있다(Knoke, 1982)는 보고가 있다. 그렇지만 협회의 회원인 것은 정치참여를 증가시키는 충분한 요인이 아니라는 보고가 있다. 미국인의 21살 이상의 60%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인 협회에 소속되어 있고 39%는 두 개 이상의 협회에 속해있고 40%는 적어도 한 개의 협회에서는 활동적이지만 (Smith, 1991) 투표율과 정치참여는 계속 줄어들기 때문이다.

협회는 개인에게 민주적 규범, 기술, 경험들을 획득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해준다(Knoke, 1990, p.1041). 동료들과의 상호교제는 다른 사람들과의 신념과 아이디어에 관한 비교의 틀을 제공 하에 준다. Knoke는

동료와의 연결망이 정치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니고 자원과 정치적 관여가 정치 참여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보고하지만, 네트워크는 참여를 위한 더 좋은 설명을 실제로 제안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고 했다.

사회적 네트워크가 효율적이고, 집합적·정치적 행동이 가능하게 만들어졌음에도, 개인의 정치적 참여는 증가하지 않았지만 사회적 접촉을 통한 협회의 동원은 개인이 행동의 요청에 반응하면서 정치참여가 증가한다고 하였다(Rosenstone & Hansen, 1993).

Hull(1987)은 지역당국을 위한 캠페인에서 사회사업학생들을 동원하여 활동을 하고 정치의활동 변화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다. Hull은 학생들이 캠페인 후에 좀더 정치적 사건에 더 흥미를 갖게 되었고 차후 캠페인에 기꺼이 참여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학생들의 투표참여는 경험 전에는 62%에서 경험 후에는 100%로 상승했다고 하였다. 이것은 정치 참여 증가를 위해서 단체에 의해서 동원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3) 정치적 관여

정치 효능감은 정치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념으로 정의된다. 즉, 자신이 정부관리나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으면 그는 주관적으로 효과성 혹은 효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행동을 취하고 효과를 갖기 위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은 시민들에게 현 상태의 도전을 동기화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사회 행동에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무능력함의 심리상태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O'Neill, Duffy, Emman, Blackmor, Goodwin, & Cambell, 1988, p. 1068). 일단 한 개인이 참여하고, 증가된 정치 확신을 발전시킨다면 그들은 차후에 더욱더 참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Dahl,1961).

또한 김강조(1999)는 정치 효능감이 높을수록 투표에 더 많이 참여한다고 하였다. 박종민(1994)은 항의와 같은 정치활동은 자신이 정치활동에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지하는 것과 양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정부를 찾아가는 행위는 정부가 시민의 참여에 반응적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과 관련 있다고 하였다.

어떤 정당에 소속되었다는 정체감은 참여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 된다(Leighley, 1991: Reece, Beatty, Dukes, 1983; Sigelman, Roeder, Jewell and Baer, 1985). 당원이 되는 것은 후보자, 이슈, 정치행동에 대한 평가에 상당한 영향을 발휘한다(Wolfinger & Rosenstone, 1970). 4만 명의 NASW 표본을 조사한 연구에서 2,053명의 3분의 2가 넘는 응답자는 민주당의 소속을 가지고 있었고 11%는 공화당 11%는 독립당의 소속감을 가지고 있었다(NASW, 1995).

정치 사건에 투여되는 관심의 집중에 있어서 개인의 흥미는 정치 참여의 수준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Leighley, 1991 :Sigelman, Roeder, Jewell and Baer, 1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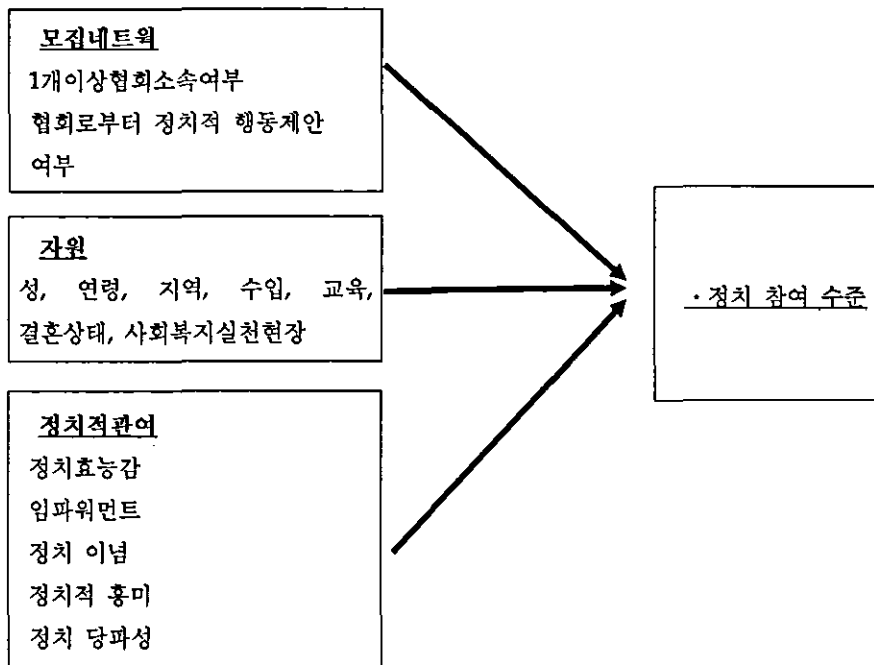
정치적 관여의 중요한 요인은 자신의 통제감에 대한 인식이다. 통제감을 인지한 개인들은 자신의 행동의 결과로써 개인에게 발생하는 사건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고 결과에 있어서 행운을 마음에 그리곤 한다(Rotter, 1966). Sussman과 Steel(1991)은 시민은 정책형성과정에서 개인적인 역량을 가지기 위한 노력에서 자기 실현화의 의식을 획득할지 모른다고 주장했다(p. 520). Leighley(1991)은 정치참여는 개인에게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감을 갖는 박식하고, 흥미 있고, 참여적인 개인이 되도록 허락한다고 했으며(p. 198). 개인이 정치에 대한 추상적인 이해를 개발시키고, 제도에 대해 반응적인 것으로 태도를 개발하고, 정치에 대한 사고방식을 개발시키는 것에 영향을 준다고 했다.

정치이념은 진보주의, 중도주의, 보수주의와 같은 정치성향에 관한 것이다. 전대현(2000)은 한국대학생은 스스로 진보적이라고 생각할수록 정치참여에 있어서 서명운동, 시위와 같은 비선거적 정치참여율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정치적 효용성, 정치적 흥미, 정치이념, 정치적 당파성, 임파워먼트와 같은 정치적 관여는 유사한 전문가 협회에 속해있고 자원의 측정에 있어서 비슷한 자격을 갖춘 사회사업가의 정치참여를 가장 잘 예측하는 변수일지도 모른다. 정책입안자들이 개인의 정치참여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개인의 행동은 정부정책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을 때, 심리적인 변수는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연구방법

1) 연구모형



<그림 1> 연구모형2) 연구질문

2) 연구질문

연구질문 1-1 한국의 사회복지사들의 정치참여의 수준과 형태의 실태는 어떠한가?

연구질문 2-1 자원의 하위범주에 따라 정치참여수준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2-2 모집네트워크의 하위범주에 따라 정치참여수준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2-3 정치적관여의 하위범주에 따라 정치참여수준과는 어떤 차이 및 관계가 있는가?

연구질문 3-1 한국의 사회복지사의 정치참여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3)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2003년 9월, 사회복지정치참여 조사위원회¹⁾에서 전국의 사회복지현장종사자들과 사회복지전공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서 본인의 연구의 주제에 맞는 대상과 변수를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사회복지 정치참여 실태조사위원회의 조사는 위원회에 소속된 전문가 및 관련전문가 12인의 설문문항 및 조사내용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조사방법은 참가단체의 홈페이지에 온라인 상에서의 접속을 통해 응답하는 방법과, 공청회나 실무기관, 대학교 등 조사대상의 표본을 다수 확보할 수 있는 곳에서 응답자가 설문지를 직접 작성하는 자기기입식 설문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조사기간은 2003년 9월 18일부터 2003년 10월 18일까지였다. 응답자의 분포는 전국 각 지역과 근무현장의 표본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응답자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종사하는 실무자와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학생을 포함하여 총 1695명이었다. 이에 사회복지 정치참여 실태조사위원회의 자료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현장종사자인 1229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4) 변수 정의 및 측정도구

(1) 종속변수

정치참여는 개인이나 집단(혹은 조직)이 정부의 정치지도자와 정책과정에 영향을 주려는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활동으로 조작화 한다. 이러한 활동의 형태로는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의 투표, 가족·동료·친구와의정치토론, 국가 판료를 접촉하기 위한 이메일·전화·편지 등의 연락, 집회나 시위의 참여, 정치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정치인 후보자나 정당에 기부금 기여가 있으며 참여한 경우에는 1,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의 이분변수로 측정한다.

정치참여수준이란 각 개별 6개 정치참여 항목의 합으로서 최고 6점, 최저 0점이며 응답자의 각 개별 항목에 대한 참여가 많을수록 정치참여수준이 높고, 개별항목에 대한 참여가 적을수록 정치참여수준이 낮다.

(2) 독립변수

독립변수의 구성은 크게는 자원(Resource), 모집 네트워크(Networks of recruitment), 정치적 관여(Political engagement)으로 나뉜다.

자원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구학적 배경과 사회경제적 지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조작화한다. 자원으로는 7개의 하위변수가 있으며 성, 연령, 지역, 수입, 교육, 결혼상태, 사회복지실천현장 변수로 구성된다.

모집을 위한 네트워크는 정치참여의 요청 시에 반응할 수 있는 연결망으로 조작화 한다. 이것은 응답자가 사회복지관련 협회의 회원인 것과 협회로부터 집합적 행동에 제안을 받은 적이 있는지의 2개의 범주로 구성된다.

협회의 회원은 사회복지관련 협회나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써 사회복지관련 협회로는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관협회, 직능단체협회,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유권자연맹, 사회복지학회, 사회복지교육협의회가 있다. 자신이 속해있는 협회나 단체를 모두 체크하도록 하고 한 개의 협회라도 소속

1). 8개직능단체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사회복지교육협의회, 한국사회복지유권자연맹으로 구성됨

되어 있는 응답자와 협회에 소속이 안 되어 있는 응답자를 구분하여 측정한다. 협회로부터 집합적·정치적 행동의 제안은 응답자가 가입되어 있는 협회로부터 집합적·정치적 행동을 제안 받은 적이 있는가에 대한 여부로써 1은 예 2는 아니오의 이분변수로 측정한다.

정치적 관여는 정치적 과정에 대한 개인의 관여와 관련된 심리적인 것으로써 조작화 하며 정치적 관여는 정치효능감, 임파워먼트, 정치적 당파성, 정치적 흥미, 정치적 이념으로 구성된다. 정치효능감은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정치참여에 대한 자신의 능력 및 정치체계의 반응성에 대한 것으로써 총 4문항으로 구성된다. '전혀그렇지않다'를 1로 시작하여 '매우그렇다'가 6인 서열변수로 측정하고 총 4문항을 합하여 측정한다. 임파워먼트는 응답자가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감의 인식에 대한 것으로써 개인의 집단 조직력, 리더쉽, 적극성, 노력성을 묻는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전혀그렇지않다'를 1로 시작하여 '매우그렇다'가 6인 서열변수로 측정하고 총 4문항을 합하여 측정한다. 정치적 흥미는 응답자가 정치 및 사회사건에 대해 얼마나 흥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것으로써 매우 흥미를 가지고 있다 1, 전혀 흥미가 없다 4의 서열변수로 측정한다.

정치 이념은 응답자가 어떤 정치이념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것으로서 극단적 진보주의를 1, 중도주의를 4, 극단적 보수주의를 7로 하여 연결선상에서 자신의 근접한 지점을 표시하도록 하여 측정한다. 정치 당파성은 응답자가 어떤 정당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것으로서 한나라당 1, 새천년민주당 2, 개혁당 3, 민주노동당 4, 사회당 5, 기타 6, 없다 7로 측정한다.

(3)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종속변수의 정치참여의 6개 항목은 미국의 사회복지사의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1991, Parker & Sherraden; 1991, 1993, Ezell; 1981, Wolk; 1998, David Henry Hamilton)에서 사용된 정치참여척도를 한국적 상황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재구성과정에서 내용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 3인의 자문이 이루어졌다. 독립변수 중에서 내적일치도를 살펴보아야 하는 정치효능감과 임파워먼트의 Cronbach's α 는 각각 0.62와 0.65로 나타났다.

4. 연구결과 및 논의

<표1>을 통하여 정치참여 실태를 살펴보면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의 투표는 86.3%의 높은 참여율을 나타냈고, 가족·동료·친구와의 정치토론은 87.7%로서 가장 높은 참여를 보였다. 이메일·전화·편지 등을 통한 정부 관료들 접촉경험은 33.4%였으며 집회나 시위의 참여 실태는 48.1%였다. 정치후보자를 위한 선거캠프에서의 선거운동은 응답자의 5.6%만이 참여한 경험이 있고 정치인후보자나 정당에 기부금 기여 경험은 응답자의 9.1%가 있다고 응답했다.

한국의 사회복지사의 정치참여 형태의 특성을 미국 사회복지사의 특성과 비교하기 위하여 Hamilton(1998)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살펴보았을 때, 투표나 정치토론은 두 나라의 사회복지사가 비슷한 수준이지만 정부 관료의 접촉경험이 미국의 경우 60.3%인 반면 한국의 경우는 절반정도의 33.4%로 저조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선거캠프에서의 선거운동도 미국의 경우 13.5%인데 비해 한국의 경우는 5.6%이며 기부금기여의 경우 미국은 35.6%이나 한국은 9.1%로 미국이 한국보다 4배정도의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반면에 집회나 시위의 참여는 한국이 48.1%로 미국의 24.7%보다 두 배 가량 높은 참여수준을 나

타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한국의 사회복지사는 정부에 사회복지계의 요구를 알리기 위한 방안으로 집회나 시위와 같은 항의형 형태의 정치참여를 활발히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집회나 시위 참여와 같은 항의형 형태의 정치참여의 특성은 참여인의 열정과 헌신이 동반되는 특성을 가진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선거기간에 복지정책입안을 정치도구화하고 있고 이 기간에 정책입안이 활발히 일어나는 현실에서 선거캠프에서의 선거운동의 참여 실태와 정치후보자나 정당을 위한 재정적 기부의 실태가 미약한 것은 사회복지사들이 복지정책입안과 관련된 현실의 정치적·사회적 이해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한국의 사회복지사들은 열정과 헌신을 좀더 세련되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추후 사회복지사들은 현재 가지고 있는 정치참여의 열정과 헌신을 정부관료 접촉, 선거캠프에서의 자원봉사, 재정적 기부와 같은 전문적이면서도 구체적인 형태의 정치참여로서 연결 지어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표 1> 정치참여 실태

n=1229

항목	구분	n	%	순위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의 투표	예	1061	86.3	2
	아니오	168	13.7	
가족·동료·친구와의 정치토론	매일	246	20.0	1
	가끔	832	67.7	
	안한다	151	12.3	
이메일·전화·편지등의 연락을 통한 정부관료 접촉	예	413	33.4	4
	아니오	822	66.6	
집회나 시위의 참여	예	591	48.1	3
	아니오	638	51.9	
정치후보자를 위한 선거캠프에서의 선거운동	예	69	5.6	6
	아니오	1160	94.4	
정치인후보자나 정당에 기부금 기여	예	112	9.1	5
	아니오	1117	90.9	

본 연구에서는 자원의 하위항목으로 성별, 연령, 결혼상태, 개인월수입, 최종학력, 지역, 사회복지실천현장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설정했으며 이 항목에 대해 정치참여수준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별에 따른 정치참여 수준은 남자가 여자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어수영(1986)의 선행연구 결과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하지만 근래 들어 남성과 여성의 정치참여수준 차이가 사라지고 있다는 많은 선행 연구결과와는 다른 것으로서 남성이 여성보다 정치참여수준이 높았다. 연령에 있어서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정치참여수준이 증가하고 중년층인 40대와 50대에 최고조이며 60대에 이르러서는 감소하는 종모양의 형태를 나타내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이것은 어수영(2000)과 Milbrath 외(1965)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결혼상태에 있어서는 기혼일 경우 미혼보다 높은 수준의 정치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제시한 Stuke와 Jennings(1995)의 결혼한 사

람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넓은 범위의 정치참여를 한다는 연구결과와 어느 정도 비슷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개인월수입에 있어서는 월수입이 높아질수록 정치참여수준이 더 높아지다가 300-399만원에 절정을 이루며 그 이후로는 월수입이 더 높아질수록 정치참여수준이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것은 재정적인 자원은 정치참여를 촉진시킨다는 Milbrath (1965)의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서 일정부분까지는 수입이 높아질수록 정치참여가 증가하지만, 일정부분을 넘어서는 참여수준이 감소하는 특성을 보인다.

최종학력에 있어서는 대학원이 가장 높은 참여수준을 나타냈고, 학력이 높아질수록 대체적으로 정치참여 수준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과 정치참여에는 강한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서 앞에서 제시된 Vedlitz(1983)의 다수의 연구결과와도 다소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지역에 있어서는 서울, 강원, 제주 순으로 정치참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이 가장 높은 정치참여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시골에 거주하는 사람보다 정치적 자극에 대한 접촉이 용이하기 때문에 정치참여가 높다는 Milbrath(1965)의 연구결과를 다소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강원도와 제주도가 대체적으로 높은 참여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위의 연구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본다. 사회복지시설현장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재단, 거주(입소)시설, 사회복지(시민)단체 순으로 정치참여수준이 나타났다. 연구소와 의료기관은 낮은 참여수준을 보였다. 이것은 직접적 실천서비스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가 행정, 교육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보다 정치참여가 높다고 한 Wolk(1991)의 연구결과를 다소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표2> 한국 사회복지사의 자원에 따른 정치참여수준 비교

특성	구분	n	정치참여평균 (표준편차)	T/F	Scheffe test
성별 (1226)	남	529	3.14(1.18)	11.561 * * *	
	여	697	2.38(1.20)		
연령 (1228)	20-29세(a)	489	2.34(1.17)	22.001 * * *	(a,b)(a,c) (a,d)
	30-39세(b)	451	2.88(1.13)		
	40-49세(c)	219	3.00(1.10)		
	50-59세(d)	54	3.30(1.53)		
	60세이상(e)	15	2.93(1.03)		
혼인상태 (1222)	미혼(a)	575	2.43(1.16)	30.772 * * *	(a,b)
	기혼(b)	638	2.96(1.19)		
	기타(c)	9	2.67(1.22)		
개인월수입 (1217)	99만원이하(a)	187	2.02(1.20)	31.347 * * *	(a,b)(a,c) (a,d)(a,e) (b,c)(b,d)
	100-199만원(b)	803	2.72(1.07)		
	200-299만원(c)	180	3.18(1.30)		
	300-399만원(d)	30	3.77(1.59)		
	400만원이상(e)	17	3.00(1.18)		
교육정도 (1229)	고등학교이하(a)	110	2.32(1.10)	31.288 * * *	(a,c)(a,d) (b,c)(b,d) (c,d)
	2년제대학(b)	149	2.19(1.19)		
	4년제대학교(c)	670	2.66(1.17)		
	대학원(d)	300	3.19(1.21)		

활동지역 (1229)	서울(a)	229	3.16(1.22)	8.910 * * *	(a,b)(a,d) (a,e)(a,f)
	경기(b)	156	2.71(1.05)		
	강원(c)	98	2.84(1.44)		
	충청(d)	138	2.43(1.05)		
	경상(e)	305	2.62(1.15)		
	전라(f)	270	2.49(1.14)		
	제주(g)	33	2.82(1.61)		
사회복지 실천현장 (1229)	공무원	33	2.33(1.11)	3.311 * *	
	이용시설	327	2.68(1.23)		
	거주(입소)시설	431	2.81(1.18)		
	사회복지재단	83	2.84(1.51)		
	사회복지(시민)단체	259	2.74(1.11)		
	대학(교)원	34	2.41(1.42)		
	의료기관	28	2.36(0.67)		
	연구소	14	1.79(0.70)		
	기타	20	2.05(1.10)		

* p<.05, ** p<.01, *** p<.001

본 연구에서는 모집네트워크의 하위항목으로서 1개 이상의 사회복지관련 협회나 단체에 소속여부와 소속된 협회로부터 정치적·집합적 행동을 제안 받은 경험여부를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사회복지사들은 87.0%인 높은 수가 1개 이상의 협회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응답자의 31.1%는 협회로부터 정치적·집합적 행동을 제안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협회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가장 많이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개 이상 협회의 소속된 응답자의 정치참여수준이 한 개의 협회에도 소속되지 않은 응답자의 정치참여수준보다 높았다. 이것은 자발적 협회의 회원인 것이 정치참여와 연관이 있다는 Knoke(1982)의 연구결과와 다소 비슷한 결과이다. 협회는 사회복지사가 자신들이나 클라이언트를 대표하여서 정치참여의 연결망을 세워 참여의 동참을 호소하거나 참여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지속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또한 협회는 협회에 가입된 개인에게 정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 작용하기 때문에 협회의 회원인 것은 정치참여 수준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협회로부터 정치적 행동을 제안 받은 경험이 있는 것은 경험이 없는 것보다 정치참여수준보다 높았다. 이것은 사회적 접촉을 통한 협회의 동원이 개인에게 행동을 요청하여 반응하게 하면서 정치참여가 증가한다는 Rosenstone & Hansen(1993)의 결과와 다소 비슷한 것이다. 또한 Verba외(1995)가 말했듯이 어떤 개인들은 아무에게도 요청 받지 않기 때문에 정치참여가 저조하다고 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복지계 관련 단체나 협회가 사회복지계의 정치참여에 있어서 중요한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 모집의 네트워크에 따른 정치참여 수준 비교

n=1229

특성	구분	n	정치참여수준평균 (표준편차)	T
협회소속	소속됨	1069	2.81(1.20)	8.575 * * *
	소속안됨	160	1.97(0.97)	
협회의 정치적·집합적 행동제안경험	있음	382	3.49(1.10)	17.114 * * *
	없음	847	2.35(1.08)	

*p<.05, **p<.01, ***p<.001

본 연구에서의 정치적 관여의 하위항목으로는 정치효능성, 입파워먼트, 정치흥미, 정치이념, 선호정당을 설정하였다. 연구결과 한국의 사회복지사들의 정치효능성과 입파워먼트는 보통이상의 수준이었다. 사회복지사들은 대다수가 정치 및 공공 사건에 흥미를 갖고 있었으며 정치이념은 보수성향이 더 높았고, 선호하는 정당이 없는 응답자가 46.0%나 되는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각 하위항목별 정치참여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정치효능성과 정치참여수준은 양의 상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이 정부관료나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진 개인일수록 정치참여를 활발히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것은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Dahl(1961)과 김강조(1999)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정치 행동에 개인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무능력함의 심리상태를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는 O'Neill, (1988)의 견해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입파워먼트와 정치참여수준은 양의 상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파워먼트가 높을수록 흥미를 갖고 있으며, 정치에 박식한 지식을 개발시키는데 능동적인 자세를 갖고 있다는 Leighley(1991)의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한국의 사회복지사들은 정치에 대한 이해를 개발시키는데 능동적인 자세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치 및 사회적 사건에의 흥미와 정치참여수준은 양의 상관성이 있다. 이것은 정치 및 사회적 사건에 투여되는 관심의 집중에 있어서 개인의 흥미는 정치참여의 수준과 관련이 있다는 Leighley(1991)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정치이념과 정치참여 수준과의 관계는 보수적일수록 정치참여수준이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것은 타 선행연구결과에서 보고한 것과는 다른 것으로 사회복지사 집단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정치이념을 가진 주체일수록 정치참여수준이 높은 것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선호정당별 정치참여수준을 비교해 보았을 때 개혁당, 한나라당 순으로 정치참여수준이 높았다. 한나라당을 선호하는 응답자의 정치참여 수준이 높은 것은 앞의 결과와 다소 일치하는 것으로 정치이념이 보수적일수록 정치참여수준이 높은 것과 연관이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선호하는 정당이 없다는 응답자의 정치참여수준이 가장 낮은 것은 정당에 소속되었다는 정체감이 정치참여를 증가시킨다는 Leighley(1991)의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선호하는 정당이 없을 때 정치참여 수준이 가장 낮은 본 연구의 결과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사회복지사의 정치참여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또 그 상대적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동시투입방식(Enter 방식)을 사용하여 중다귀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6>와 같다. 모든 독립변수를 투입하여 종속변수인 정치참여수준과 관계를 살펴본 결과 회귀모형 적합도인 F값은 60.672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수정된 R^2 값은 .433으로 정치참여에 대해서 43.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회귀모형은 종속변수인 정치참여에 대해 43.3%의 설명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표4> 정치효능성, 입파워먼트, 정치적 흥미, 정치이념과 정치참여수준과의 상관관계

	정치효능성	입파워먼트	정치적 흥미	정치이념
입파워먼트	0.453 * * *	1.000		
정치적 흥미	0.511 * * *	0.337 * * *	1.000	
정치이념	0.155 * * *	0.112 * * *	0.108 * * *	1.000
정치참여수준	0.489 * * *	0.329 * * *	0.426 * * *	0.153 * * *

* $p < .05$, ** $p < .01$, *** $p < .001$

<표 5> 정치이념 및 선호정당에 따른 정치참여수준 차이

특성	구분	n	정치참여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test
정치이념 (1226)	진보성향(a)	318	2.44(1.16)	13.826 * * *	(a,c)(b,c)
	중도성향(b)	301	2.65(1.25)		
	보수성향(c)	607	2.87(1.18)		
선호정당 (1227)	한나라당(a)	150	3.10(1.12)	16.496 * * *	(a,g) (b,c)(b,g) (c,f)(c,g) (d,g)
	새천년민주당(b)	209	2.77(1.09)		
	개혁당(c)	108	3.40(1.22)		
	민주노동당(d)	130	2.93(1.22)		
	사회당(e)	6	2.67(0.52)		
	기타(f)	60	2.57(1.42)		
	없다(g)	564	2.41(1.15)		

* $p < .05$, ** $p < .01$, *** $p < .001$

정치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자원영역에서는 지역($\beta=.083$), 개인월수입($\beta=.106$), 최종학력($\beta=.056$), 실천현장'시설'($\beta=.163$), 실천현장'재단·단체'($\beta=.160$), 성별($\beta=.085$), 연령($\beta=.086$)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모집 네트워크의 영역에서는 협회로부터 정치적·집합적 행동 제안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beta=.248$)과 1개이상 협회의 회원으로 소속된 것($\beta=.081$)이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정치적 관여 영역에서는 정치효능성($\beta=.220$), 정치흥미($\beta=.151$), 정치이념($\beta=.064$), 입파워먼트($\beta=.050$), 선호정당($\beta=.051$)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들의 상대적인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해 β 값을 비교해 보면 협회로부터 정치적·집합적 행동 제안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beta=.248$) > 정치효능성($\beta=.220$) > 실천현장'시설'($\beta=.163$), > 실천현장'재단·단체'($\beta=.160$) > 정치흥미($\beta=.152$) > 개인월수입($\beta=.106$) > 연령($\beta=.078$) > 성별($\beta=.082$) > 지역($\beta=.083$) > 1개이상 협회의 회원으로

소속된 것($\beta=.081$) > 선호정당($\beta=.051$) > 최종학력($\beta=.050$), 임파워먼트($\beta=.050$)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정치참여수준에는 협회로부터 정치적·집합적 행동 제안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과 정치효능성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실천현장으로서 시설이나 재단, 단체에 근무하는 것과, 정치흥미가 있는 것도 정치참여에 영향을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영역에서의 결혼상태를 제외하고는 독립변수로 설정된 대부분의 변수들이 한국 사회복지사의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나타났다.

<표 6> 사회복지사의 정치참여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치참여수준		
	B	β	t 값
성별	.200	.082	3.308 **
연령	.101	.078	2.565 *
지역	.252	.083	3.498 ***
개인월수입	8.899E-02	.106	3.835 ***
최종학력	6.847E-02	.050	2.007 ***
결혼상태	2.405E-03	.001	0.034
실천현장(시설)	0.409	.163	4.104 ***
실천현장(재단,단체)	0.429	.160	3.969 ***
1개이상 협회의 회원	.312	.081	3.528 ***
협회의 행동제안 경험	.641	.248	10.340 ***
정치효능감	.330	.220	7.766 ***
임파워먼트	8.801E-02	.050	1.954 *
정치흥미	.276	.152	5.732 ***
정치이념	6.543E-02	.064	2.740 **
선호정당	.186	.051	2.249 *
constant	-1.803		-7.193
adjusted R ²		.433	
F		60.672 ***	

주: 가변수(Dummy Variable)화하여 사용함: 성별(여=0, 남=1), 지역(서울외지역=0, 서울=1), 결혼상태(미혼=0, 기혼=1), 실천현장 '시설'(그외=0, 이용시설·거주입소시설=1), 실천현장 '재단·단체'(그외=0, 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시민단체=1), 1개이상 협회의 회원(소속안됨=0, 소속됨=1), 협회의 행동제안 경험(없음=0, 있음=1), 선호정당(그 외=0, 한나라당=1)

* p<.05, ** p<.01, *** p<.001

본 연구 결과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정치참여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자원의 영역중에 연령, 지역, 성별, 개인월수입, 최종학력, 실천 현장등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erba & Nie(1972)와 Verba, Schlozman, & Brady(1995)는 미국시민들의 정치참여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의미 있는 것임을 보고하였는데, 한국의 사회복지사의 정치참여에도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미국의 사회복지사의 정치참여 영향요인으로 수입과 교육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들은 의미 없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hamilton, 1998). 이것은 미국 사

회복지사가 사회경제적 지위와 교육수준이 높은 편에 속해 있으며 이러한 특성들이 어느 정도 유사한 집단이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모집 네트워크에 있어서 협회의 회원으로 소속된 것과 협회로부터 정치적 행동 제안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2003년 정부 정책 결정 과정시 사회복지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활동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및 사회복지관 협회등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을 반영한 결과인 것으로 보여 진다. 미국의 사회복지사에 대한 연구결과에서도 전문가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활동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사회복지관련 전문적인 협회나 단체가 정치활동을 위해 사회복지사를 동참하게 하여 결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정치 효능성과 정치 및 공공의 사건에 대한 개인의 흥미는 시민자발성모델에서 정치참여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변수이다(Verba, Schlozman, & Brady ; 1995). 시민 자발성 모델이란 정치효능감, 흥미와 같은 심리적 요인이 발달되었을 때, 정치참여를 활발히 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모델이다. 다시 말해 개인이 사회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정치나 사회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개입하려는 일련의 태도 및 행동이 발달되었을 때 정치참여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사회복지사에 있어서 이러한 정치효능감이나 정치흥미가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변수임이 나타났다.

또한 시민자발성모델은 한 개인이 시민 자을 단체의 참여도가 높아 심리적, 행동적으로 공동체 생활 전반에 연결 정도가 높을 때 정치참여가 활발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모델이다. 즉, 이것은 능력을 가진 개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참여하기를 요청받을 때 더 활발히 정치 활동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의 결과 정치효능성과 정치흥미, 협회의 소속과 정치적 행동 제안이 정치참여에 영향력 있는 변수인 것으로 보아 시민자발성모델은 한국의 사회복지사의 정치참여를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어느 정도 보여 진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지사들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는데 있어서는 정치효능성 및 정치흥미를 길러주는 접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요구된다는 것과 연결지을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협회나 단체의 역할이 사회복지사들의 정치참여를 유도하고 결집시키기 위해서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5. 제언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복지사의 정치참여 현황을 진단하여 차후 활동형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자원, 모집 네트워크, 정치적 관여의 현황과 변수와 정치참여수준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여 정치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한국의 사회복지사는 집회나 시위 참여와 같은 항의형 형태의 정치참여를 활발히 하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관료 접촉과 정치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재정적 기부와 같은 전문적인 형태의 정치활동은 미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사회경제적 요인, 협회소속 및 활동제안, 정치효능성, 정치흥미 등이 한국 사회복지사의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사회경제적 모델과 시민자발성모델이 한국사회복지사의 정치참여를 설명하는데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사회복지사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복지사들의 정치효능성을 길러 줄 수 있는 교육적인 접근이 마련되어야 한다. 연구를 통해

사회복지사들의 정치참여에 무엇보다도 정치효능성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사회복지교육영역이나 실천영역에서는 직접적인 경험이나 관찰을 통해 정치적 견해나 가치, 기술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와 교육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일례로,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실습 커리큘럼을 좀더 개발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정치활동의 기술 및 방법, 전략 등을 전문적으로 실천 할 수 있도록 이론적인 토대를 쌓도록 하는 교과목을 개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적인 접근은 정치가 너무 복잡해서 개인의 참여는 어떠한 차이도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사회복지사들의 인식을 전환케 하고 개인의 참여는 정치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하여 사회복지사의 정치활동을 더욱 증가하게 할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 단체나 협회가 사회복지계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강조된다. 본 연구에서는 협회 소속과 협회로부터 정치적 행동을 제안 받은 것이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협회는 협회에 가입된 개인에게 정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는 네트워크이며 회원에게 정치참여의 동참을 호소하거나 참여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지속할 수 있게 한다. 이처럼 협회는 정치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례로 미국의 NASW에는 정치활동위원회가 하부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 조직을 통해 국회의원을 접촉하고 사회복지계의 의사를 전달하기도 한다. 또한 사회복지에 우호적인 정치인을 키우고 후원하기도 하며 필요시 사회복지사들을 동원하여 집단시위를 계획·실행하는 등의 조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회원의 회비의 5%를 정치활동기금으로 따로 떼어두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미국 사회복지사협회의 정치활동을 위한 노력은 현재 한국의 사회복지사들이 가장 많이 소속되어 있고 미국의 NASW과 유사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차후 협회가 이러한 개선방안이 받아들여질 때 한국의 사회복지계의 정치세력화는 이루어 질 것이다.

참고문헌

- 김강조(1999). 주민참여의 영향요인 분석. 경상대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명숙(1996). 정치향의 원인과 과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박사학위논문.
- 김성이(2003). 한국 사회복지사의 정치활동에 관한 연구. 이화사회복지연구. 3.
- 김성이(2003). 한국 사회복지계의 정치활동 전략. 사회복지유권자연맹 자료집.
- 김광웅·방은령(2001). 한국 청소년의 정치의식과 형성요인. 아산재단 연구총서. 84.
- 남준우(1998). 사회복지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 논문.
- 박종민(1993). 한국에서 비선거적 정치참여. 한국정치학회보. 28. 1.
- 신명순(1993). 한국정치론. 법문사.
- 윤형섭·김영래(1989). 한국 이익집단의 정치참여에 대한 연구.
- 어수영·곽진영(2000). 한국인의 정치참여의 변화와 지속성. 한국정치학회 추계학술회의.
- 어수영·한배호(1987). 한국정치문화 서울: 법문사.
- 이성진(1992). 주민의 정치적 효능감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 전대현(2000). 한국 대학생의 정치의식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성만(2002). 한국 사회단체의 정치활동. 아세아연구. 45.
- 황영만(1989). 중·고등학생의 정치정향의 특성과 정치사회화의 동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

위논문.

_____ , 시민적 관여가 컴퓨터 매개 정치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

경향신문 8월 22일자, 대한매일 9월 2일자, 한겨레 8월 8일자 등

- Cambell, A., Converse, P.E., Miller, W., & Stoke, D.E.(1964), *The American voter*. New York; John Wiley & Sones.
- Cloward, R.A.(1990).Introduction.In Reeser, L.C. & Epstein, Professionalization and activism in social work: the sixties. the eighties, and the futur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Conway, M.M.(1991). *Political participation in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C: Congressional Quarterly Press.
- Davidson, W.B. & Cotter, P.R.(1989). Sense of Community and Political participatio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17(2)
- David Hamilton(1998). *An affecting factor of Social Workers' Political Participation*. the 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
- Domanski, M.D.(1998). Prototypes of social work political participation: an empirical model. *Social Work*.43(2).
- Ezell,M.(1993). The political activity of social workers: a post Reagan update. *Journal of contemporary human service*.
- Figueria-McDonough, J.(1993). Policy practice: the neglected side of social work Invention. *Social Work*. 38.
- Guth, J. & Green, J. (1990). Politics in a new key: religiosity and participation and political activist. *Western Political Quarterly*. 43.
- Hansfeld, Y. & Rafferty, J.A.(1989). The determinants of public attitudes toward the welfare state. *Social Forces*. 67.
- Haynes, K.S & Mickelson, J.S.(1986). *Affecting Change*. New York: Longman.
- Hull. Jr.,G.H.(1987). Joining together: a faculty-student experience in political campaigning. *Journal of Social Work Education*.23(3).
- Knoke, D.(1982). Political mobilization by voluntary associations *Journal of Political and Military Sociology*. 10.
- Leighley, J.(1991). Participation as a stimulus of political conceptualization. *Journal of Politics*. 53.
- Mathews, G.(1982). Social workers and political influence. *Social Service Review*, 56.
- Milbrath, L. W. (1965). *Political participation*. Chicago, IL: Rand McNally and Co.
-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1995). *PACE survey of members' political activity*. Washington, DC: Author
- National Federation of Societies for Clinical Social Work. (1987). Code of ethics. *Clinical Social Work Journal*. 15.
- Parker, M. & Sheraaden, M. (1991). Electoral participation of social workers. *New England Journal of*

Human Services, 11(3).

Reeser, L.C.(1991). Professionalization, striving, and social work activism. Journal of Independent Social Work. 2.

Rosenson, S.,J & Hansen, J.M.(1993). Mobilization. Participation and democracy in America. New York: Macmillan

Verba, S. & Nie, N.(1972). Participation in America: political democracy and social equality, New York: Harper and Row.

Wolk, J.I.(1981). Are social workers politically active? Social Work. 26.

ABSTRACT

The study about social worker's the political participation state and an influenced factor.

Political participation consciousness of social worker is changed and politics participation activity is putting forth with a bud. Currently, the systematic and scientific approach in study of social worker's the political participation is short. This study analyzes the present situation of political participation action and will present political participation action contents and direction in the future. This study may give practical meaning to the social welfare practice and educational scope about what we must do to become a political influence the group.

The object of this study is 1229 people in choosing social welfare politics participation investigation committee data.

A participation of Korean social worker appeared that a meeting or a demonstration is high when comparing the United States. Also, electioneers, and, government bureaucrat contact, financial contributions is a half experience.

The strong variable in explaining social worker's the political participation was a politics efficacy, politics interest. Political efficacy and politics interest, a joining and a political behavior proposal of an association is a influenced factor. Through this result The Civic Volunteer Model is a theory to able to explain social worker's the political participation. Approach growing the political efficacy and politics interest is very important in activating politics participation. Role of a social welfare association or a group was important in order to induce politics participation and concentrate.

key words : the political participation state, political efficacy, a social welfare association